

□ FPO, 금년 경제 4% 성장 전망 (1.29, Bangkok Post)

- 재무부 재정정책국(FPO)은 국내 소비경기 회복 및 수출 성장 지속으로 금년 GDP 성장률이 3.5-4% 범위에서 평균 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- 폰차이 FPO 국장은 오미크론에 따른 국내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가 4.5% 증가하고 수출이 3.6% 성장하는 등 금년 전반적 경제지표 전망이 아직까지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.
- 작년에 마련한 2차 코로나19 차입예산(5,000억 바트) 중 1,000억 바트(약 30억 달러)가 현재 가용 가능한 바,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함.
- 다만, 팬데믹의 불확실성,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성 심화,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위험요소가 산재한 바, 태국 경제가 경제상황을 주시하며 이에 따른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함.

□ 작년 4분기, 생산·소비·투자 트리플 증가 (2.1, Bangkok Post)

- 태국중앙은행(BoT)은 작년 4분기 코로나19 상황 안정 및 국가개방,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전분기대비 생산, 소비, 투자가 모두 늘었다고 발표함.
- 기업경기개선 및 수요회복으로 제조업생산지수(MPI)가 전분기대비 8.2% 증가하였고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전분기대비 각각 8.2% 1.5% 증가함. 또한 무역상대국들의 경기회복으로 수출도 전분기대비 5.6% 증가함.
- 한편, 금년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작년 말의 경제회복세가 둔화된 측면이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며 향후 오미크론의 영향과 추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

□ 건설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분양가 상승 전망 (2.1, Bangkok Post)

- '20년 1분기 이후 태국 콘도 및 주택 분양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왔으나 작년 4분기부터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인한 건설원자재 급등으로 금년 콘도 및 주택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.
-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철강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8.7% 상승하였고 콘크리트, 알루미늄 가격은 각각 5.6%, 4.2%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건설원자재 가격이 상승함.
- Landy Home(부동산 개발기업)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주변국 건설노동자들의 부채로 인한 노무비 상승도 금년 분양가 상승 전망의 주요 요인이라

고 함.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이 저렴한 미얀마, 캄보디아 등 주변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태국 입국이 불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태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.

- Supalai Plc(부동산 개발기업) 뿌라팁 회장은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년 건설원가가 전년대비 3-4%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노무비 및 연료가격 상승을 반영할 경우 추가 2%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JSCCIB, 금년 3~4.5% 경제 성장 전망 (2.2, Bangkok Post)

- 3개산업(상업, 산업, 은행업) 합동상임위(JSCCIB)는 연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둔화된 측면이 있으나, 경제에 미칠 타격이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며 금년 GDP 성장률이 3~4.5%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다만,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우려함. 작년 4분기부터 월별 물가상승률이 2%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3%까지 도달할 경우 경제회복세가 기대보다 위축될 수 있다고 함.
- 한편, 정부의 무격리 입국(Test & Go) 재개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바, 금년 외국인 입국자 수 전망을 당초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상향함.

□ 금년 쌀 수출 15% 증가 전망 (2.2, Bangkok Post)

- 태국쌀수출협회는 금년 양호한 기후로 금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18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바트화 약세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금년 쌀 수출이 전년대비 14.6% 증가한 7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- 전세계 1위 쌀 수출 국가였던 태국은 가뭄과 바트화 강세 등으로 '18년도 수출량이 인도에 밀려 2위를 기록하였고 '20년에는 570만 톤으로 20년 만에 수출량이 최저를 기록하며 베트남에 밀려 3위를 기록함.
- 추기앗 태국쌀수출협회 명예회장은 작년 수출량이 611만 톤을 기록하며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베트남에 뒤처진 상태라고 밝히며 글로벌 식품수요 회복으로 베트남 쌀보다 품질이 우수한 태국 쌀이 금년 2위 자리를 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함.

□ '21년 FDI 전년대비 2.7배 증가 (2.4, Bangkok Post)

- 태국투자청(BoI)은 '21년도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유치실적이 783건, 4,550억 바트(약 138억 달러, 신고기준)로 투자액이 전년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함.
- 투자액 상위 3개국으로는 일본이 807억 바트(약 25억 달러, 178건), 중국 386억 바트(약 12억 달러, 112건), 싱가포르 297억 바트(약 9억 달러, 96건)를 기록함.
- 주요 투자 산업은 전자기기·전자산업이 1,050억 바트(약 32억 달러)로 전체 FDI의

23%를 차지하였고 의료산업 622억 바트(약 19억 달러), 석유화학·화학산업이 484억 바트(약 14.7억 달러), 농식품 가공업 477억 바트(약 14.5억 달러), 자동차 및 관련부품산업 투자는 246억 바트(8억 달러)를 기록함.

o 한편, '21년 BoI의 내외국인 총 투자 유치액은 6,430억 바트(약 195억 달러)로 전년 대비 59% 증가하였고 bio-circular-green(BCG) 관련산업 투자가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,520억 바트(약 46억 달러)를 기록함.

- 두영씨가 BoI 청장은 정부의 BCG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진흥책에 따라 향후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와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기업들의 BCG 관련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.

※ '21년 BoI 총 투자 유치액 중 FDI 비중은 71%를 차지

뉴스 보도 출처:
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255395/fpo-keeps-2022-growth-view-at-4->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256715/impact-of-omicron-less-than-expected-says-bot>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256759/home-prices-set-to-surge-in-2022>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257615/top-business-group-retains-2022-gdp-outlook-despite-omicron>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257623/rice-export-target-set-at-7m-tonnes>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258435/bai-applications-see-59-rise-in-2021>